아시아리뷰 제7권 제1호(통권 13호), 2017: 151~174 http://dx.doi.org/10.24987/SNUACAR.2017.7.1.151

구동독에서의 소비에트형 대학의 이식과 청산*

임홍배 서울대학교 독문과

2차대전 후 동독 지역의 대학은 소련군정청과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주도하에 재건되었다. 동독 대학의 소비에트형 모델의 전형적인 특징은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대학과 별도로 사회과학원과 과학원, 그리고 당원 교육기관인 당정치학교를 설립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인민교육부와는 별도로 대학교육을 전담하는 대학교육부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에 특별히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전 국민에게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동자학부를 설치하여 노동자와 농민 자녀들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부여했다. 1960년대부터 취업활동과 대학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3년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1970년대 초반에는 이들이 전체 대학생 중 25%를 차지했다. 교과과정의 특징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교육, 러시아어, 체육 등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대학생의 자치조직인 학생회는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그 대신 사회주의통일당과 연계된 자유청년연맹(FDJ) 대학지부 등의 관변조직이 학생회를 대체했다.

1989년 독일 통일과 더불어 시작된 구동독 지역 대학 개혁은 당정치대학, 국방대학 등 특수전문대학과 경쟁력을 상실한 공업전문대학을 폐지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대학을 대폭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수들은 90% 이상 퇴출되었고, 전체적으로 교수의 60%, 대학 외 연구인력의 60%, 산업체 연구인력의 85%가 퇴출되었다. 대학 입학생 수는 통일 당시 동독 지역에서 학령인구의 16%, 서독 지역에서 35%를 차지했으나, 2010년대에 와서 동독 지역이 40~45% 수준으로 독일 전체의 평균치를 회복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독일 통일 후 동독 지역의 대학 개혁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남북한 상호교류와 접근을 통해 점진적인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 교수와 연구인력이 대거 퇴출되었지만, 우리는 통일 이전부터 북한 대학의 교수와 연구인력이 남한의 지적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 대학생 수가 급감한 것을 유념하여 통일과정에서 북한 대학생들이 일정 수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소비에트형 대학, 사회주의 체제, 통일, 대학 개혁, 균형발전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61-A00017).

www.kci.go.kr

I. 머리말

1945년 9월 4일 소련군정청[1] 훈령 50호에 따라 소련 점령 지역에서 대학을 재건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같은 해 10월 예나대학이, 1946년 2월 베를린대학이 개교했다. 소련 점령 지역에서의 대학 재건은 초기에는 소련군정청 산하 인민교육위원회가 주도했고, 곧이어 나치 시대에 소련으로 망명했던 사회주의자들이 귀국하여 창당한 사회주의통일당(SED)이 주도하여 대학의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구동독에서 소비에트형 대학체계가 구축된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1단계는 2차대전 후 소련군정청과 사회주의통일당의 주도하에 소비에트형 대학체계를 구축한 1945~1949년 시기, 2단계는 1949년 10월 동독 국가 수립 이후 사회주의 토대 구축을 표방한 1950~1960년 시기, 3단계는 베를린 장벽 구축 이후 냉전체제의 대결 구도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전면적 확장과 발전을 추구했던 1961~1980년 시기,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표방했던 1980년대로 대별된다. II절에서는 구동독 지역에서 새로운 대학체계가 정착되는 처음 두 시기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1989년 독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대학 개혁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단계에 해당되는 1990년대에는 구동독 지역의 대학을 통폐합 또는 신설하고 구동독 당시 재임하던 대학 교원을 대거 교체했다. 아울러 대학 연구소, 대학 외 연구소, 산업체 연구소의 재편과 함께 연구인력이 쇄신되었다. 통일 독일 정부는 애초에 1994년까지 구동독 지역의 대학 개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렇지만 구동독 지역 대학에서 20% 이상 퇴출된 교수인력의 공백을 충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0년대까지도 대학 개혁에 따른 후속작업이 계속되었다. 2단계에 해당되는 2000년대에는 구동독 지역의 대학 내외 연구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구동독 지역 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진흥정책이 시행되었다. 3단계에 해당되는 200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는 2단계 사업이 상당 부분 계속되고, '대학교육지원협약 2020'이 시행되어 2020년까지 대학생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정

[1] 소련군정청(Soviet Military Administration)은 1945년 6월부터 1949년 10월 6일까지 존속했다.

www.kci.go.kr

책이 추진되고 있다. '연구 및 혁신 협약'을 통해 2020년까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매년 5%씩 증액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단을 집중 지원하는 '우수선도대학 지원사업(Exellenzinitiative)' 등을 새로 도입했다. III절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대학 개혁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1990년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구동독에서의 대학 개혁이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구동독의 대학체계

1. 1945~1949년 시기

이 시기에 소련 점령 지역에서 대학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나치 과거 청산이었다. 1945년 6월 소련군정청은 모든 공직에서 나치 부역자를 축출하라는 훈령을 공포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대학 교원들을 상대로 나치 전력 실태를 조사하여 같은 해 말까지 모두 586명의 교수 및 강사가 해직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련 점령 지역의 대학 교원 수는 종전 전 2,041명에서 종전 후 1946년 1월 기준으로 1,558명이나 줄어들었고, 그 가운데 나치당원은 586명으로 약 38%를 차지한다. 따라서 나치 과거 청산으로 인한 감원보다는 연합군 점령 지역과 미국 등 서방세계로 유출된 대학교원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과거 히틀러 치하에서 외교관을 양성하는 등 국가기구에 종속되어 있던 외교학부를 폐지한 것도 나치 과거 청산의 일환이었다. 외교학부를 폐지한 것을 제외하면 과거의 대학 편제는 거의 유지되어 신학부도 그대로 존속했다. 또한 초중등 교원 양성을 위해 과거에는 종합대학에 속해 있던 사범대학을 독립 대학으로 신설했다.

대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모든 계층의 자녀들에게 학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평등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학업 능력이 모자라는 노동자 · 농민층 자녀들을 비정규 학생으로 별도로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1년 동안 예과과정

www.kci.go.kr

표 1 소련 점령 지역의 대학 교원 수 변화

대학	교수				강사			
	1945.1	1946.1	감원	나치당원	1945.1	1946.1	감원	나치당원
베를린	583	108	475	150	404	62	342	90
리아프치히	224	54	170	58	103	15	88	38
예나	133	41	92	34	86	33	53	13
할레	144	52	92	78	85	15	70	60
그라이프스발트	80	34	46	17	34	24	10	9
로슈토크	96	35	61	19	69	10	59	20
합계	1260	324	936	356	781	159	622	230

출처: Nikitin(2000b: 54).

을 이수한 후 전공과정에 진입하도록 했고, 1949년에 '노동자 농민 자녀 예비학부'가 정식으로 신설되었다. 1946년 베를린대학 신입생 3,226명 가운데 노동자 농민 자녀로 선발된 학생은 272명이었고, 이후 모든 대학에서 신입생의 15% 수준을 유지했다(Tenorth, 2012: 75).

소련 점령 지역에서 급격히 감소한 대학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이른바 교수후보생(Aspirant) 양성제도를 도입했다. 아직 대학원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과도기의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 수혈조치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수후보생은 철저한 사상검증을 거쳐 선발되었는데, 1948년 말 기준으로 총 89명의 교수후보생 가운데 사회주의통일당 당원이 65명, 독일공산당 당원이 6명이었다(Nikitin, 2000a: 8).

동독이 정식 국가로 출범하기 이전 시기에 소련군정청이 주도한 대학재건 사업은 군정청 산하 인민교육위원회가 총괄했고, 원칙적으로 소비에트형 대학 모델을 지향했다. 그렇지만 대학재건 과정이 일방적인 상명하달식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상당한 갈등과 진통을 수반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베를린대학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과 베를린대학을 훔볼트대학으로 개명하는 과정에서 그 점은 단적으로 드러난다(Tenorth, 2012: 109-123).

- 1차 초안: 베를린대학은 소련 점령 지역에 있는 독일인민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47.4.16)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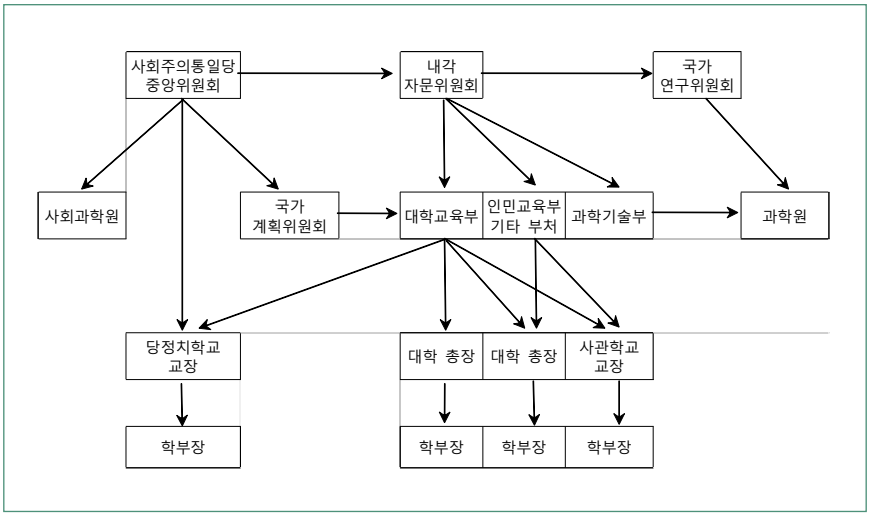
- 4차 수정안: 베를린대학은 과거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학을 토대로 독일인민교육부에 의해 신설된 대학이다. (1947.12.24)
- 5차 수정안: 베를린대학은 1946년 1월 20일자 소련군정청 최고사령관의 훈령 4호에 근거하여 신설된 대학이다. 베를린대학의 운영은 독일인민교육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1948.2.12)

1차 초안은 원래 1810년 개교 당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이름을 따라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학'이던 대학 명칭을 '베를린대학'으로 개명했고, 대학 운영을 인민교육부가 총괄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반면에 4차 수정안은 다시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학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5차 수정안은 다시 소련군정청에 의한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인민교육부에 의한 지휘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진통을 거쳐 1948년 5월 23일자로 베를린대학뿐만 아니라 소련 점령 지역의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임시정관은 반파시즘 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고 반동적·제국주의적 이념을 배격하며 인민의 대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베를린대학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학 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어 최종적으로 훔볼트대학으로 개명했는데, 이것은 베를린대학을 설립한 훔볼트의 인본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마르크스 대학'이나 '레닌 대학' 같은 명칭을 피하려 한 긴장과 갈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 1950~1960년 시기

1949년 10월 7일 동독이 국가로 출범하고 국가운영 체계가 정비되면서 대학 역시 이전에 비해 체계화되었다. 대학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민주적 중앙집중제'의 원칙을 표방하여 사회주의통일당과 국가기구 그리고 대학 사이의 긴밀한 연계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 정책과 학술연구 정책의 방향과 운영을 총괄하는 정점에 당 중앙위원회가 있고, 내각자문회의가 당과 주무 부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아울러 당 중앙위원회 직할 국가계획위원회가 모든 대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일원적인 지휘체계가 구축되었다. 사회과학원과 과학원이 대학과는 별도의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당 중앙

www.kci.go.kr



출처: Buck-Bechler(1997: 22)

그림 1 구동독 대학의 지배구조

위원회 산하에 있고 당정치학교 역시 같은 위상에 배치된 것도 소비에트형 대학의 전형적 특징이다. 교육을 관장하는 내각 부처가 대학교육부와 인민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서방의 대학체계와 구별되는 특색이다. 대학의 유형에 따라 일반 종합대학은 대학교육부의 지휘를 받지만, 예컨대 공과대학이나 기술대학은 대학교육부 외에도 과학기술부의 지휘를 받는다. 또한 사범대학은 인민교육부의 지휘를 받으며, 예술대학은 문화부 산하기관으로 편제된다.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1951년 2차 대학 개혁을 통해 ① 모든 대학에 공통의 표준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②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으며, ③ 러시아어 4학기 이수와 체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④ 중간고사 제도와 학점 표준화를 도입했다.

학생활동과 관련해서는 1950년에 전통적인 학생자치 조직인 학생회를 법적으로 폐지했고, 그 대신 사회주의통일당과 연계된 다양한 학생조직이 당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사회주의통일당 대학지부, 자유독일청년연맹(FDJ) 대학지부, 나치 피해자연대 대학지부, 독 · 소 친선협회 대학지부, 대학평화위원회, 대학생체육협회 등이 대표적인 학생조직들이다.

www.kci.go.kr

3. 구동독의 대학 현황

1989년 기준으로 구동독에는 종합대학 9개, 공과대학 12개, 사범대학 9개를 비롯하여 모두 70개의 대학이 존재했다. 표 2에서 보듯이 2차대전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공과대학이 10개 늘었고, 기술전문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체육대학 등이 신설되었으며, 10개의 군사대학과 4개의 당정치대학이 신설된 것이 소비에트형 대학체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된다.

표 3에서 보듯 전공 분야별 학생 수는 공학이 3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여 1950년대 이래 동독이 추진한 계획경제의 근간인 산업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핵심적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범대학 학생 수가 21%로 초중등 교육에도 역점을 두었다.

대학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기준으로 종합대 2만 9,300명, 전문대 2만 4,100명을 기록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전문대 입학생 수가 종합대학 입학생 수보다 많았지만 1970년대부터 종합대 입학생이 더 많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 대학생 수가 급증한 이유는 1960년부터 실

표 2 대학 유형별 입학 정원: 1989년 기준

대학 유형	대학 수		정원	비율 (%)
	1939년	1989년		
종합대학(종합공대 포함)	6	9	92,300	52
공과대학	2	12	34,500	19
기술전문대학	-	3		
의과대학	-	3	2,200	1.5
사범대학	-	9	17,300	10
농업대학	3	2	1,400	1
상과대학	-	2	6,600	4
체육대학	-	1	3,000	2
미술대학, 음악대학	5	12	4,400	2.5
군사대학	-	10	11,500	6.5
경찰대학	-	3	1,000	0.5
당정치대학	-	4	4,000	1
합계	16	70	178,000	100

출처: Buck-Becher(1997: 50,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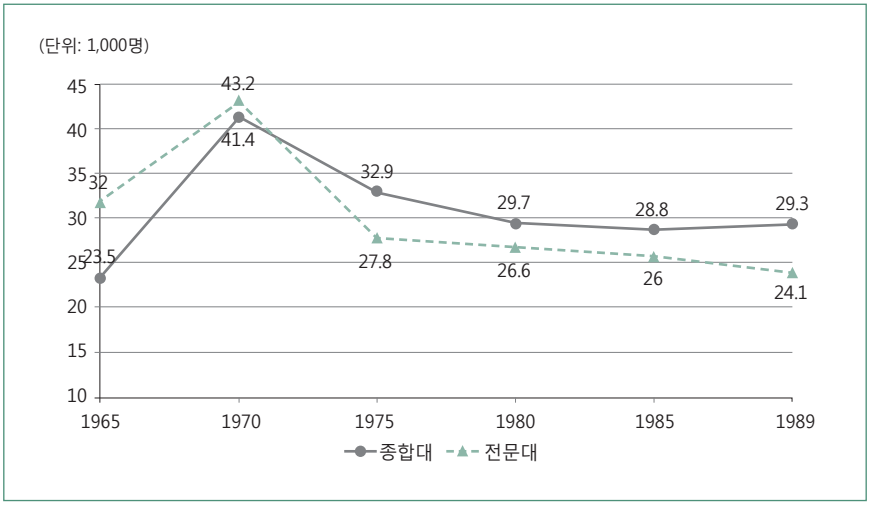
www.kci.go.kr

표 3 전공별 학생 비율: 1980년대 평균

분야	비율(%)
공학	36
사범대학	21
법학, 경제학, 사회과학	14
자연과학	8
의학	8
농학	5
인문학, 예술	7
합계	100

출처: Buck-Becher(1997: 65).

업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중인 학령인구 중에 대학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희망자를 선발하여 3년 과정의 대학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대학교육을 받았는데, 그 숫자가 많을 때는 전체 대학 신입생 수의 25~28%를 차지했다(Buck-Becher, 1997: 164).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방송통신대학이 직장인들의 대학교육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함에 따라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의 수는 다시 급격히 줄



출처: Buck-Becher(1997: 53).

그림 2 대학 입학생 수의 증감 추이

www.kci.go.kr

표 4 동독과 서독의 대학 진학률 비교(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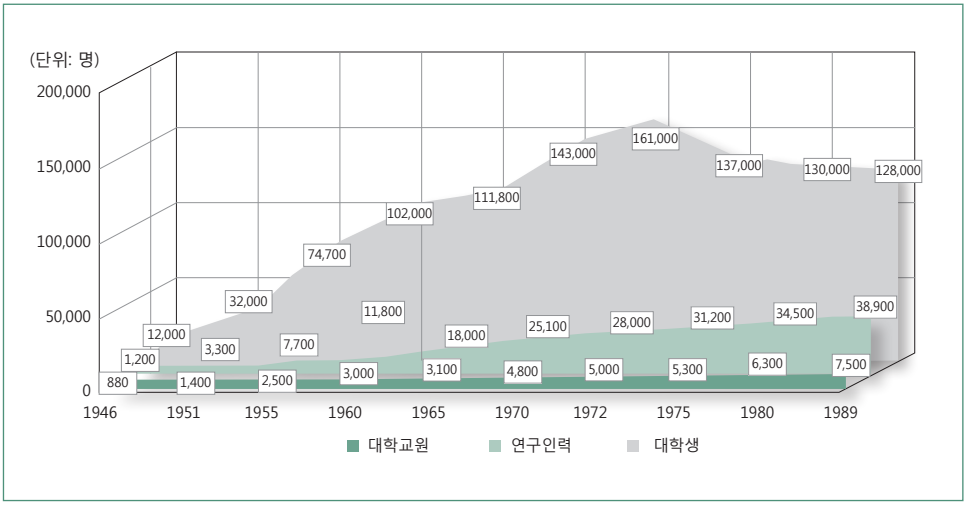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구동독	8	14	16	17	13	15	16
구서독	10	17	16	20	20	22	30

출처: Geißler(1994: 253); Buck-Becher(1997: 80).

어들었다.

동독의 대학 진학률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에 비해 1980년대에는 두 배로 늘어났다. 서독과 비교하면 1970년대 초반까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통일 직전에는 대학 진학률이 서독의 절반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원과 연구인력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원은 1946년 880명에서 1989년 7,500명으로 9배 증가했다. 대학과 대학 외 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인력은 1946년 1,200명에서 1989년 3만 8,900명으로 약 30배나 증가했다. 연구인력의 이러한 팽창은 대학 내 연구소 외에 과학원 같은 독립 연구소가 다양한 이공학 분야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업체 부설 연구소들이 급증



출처: Buck-Becher(1997: 17).

그림 3 동독의 대학교원, 연구인력, 대학생 수의 증감 추이(1946~1989년)

www.kci.go.kr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동서독 통일 후 구동독의 낙후한 산업시설과 기술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체 부설 연구소를 비롯한 대학 외 연구인력은 대량 실직상황을 맞게 된다.

III.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대학 개혁

1. 대학 개혁의 원칙

1990년 8월 31일 동독과 서독 정부 사이에 체결된 통일조약은 구동독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대학과 연구소 포함)의 존폐를 통일 후 새로 구성될 주정부에 일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3조). 아울러 1990년 말까지 각 시설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1994년까지 구조개혁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동독 지역의 교육 및 연구 체계에 대한 평가는 구서독 지역의 기준에 맞춘다는 포괄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제38조). 이에 따라 국가학술정책자문위원회(Wissenschaftsrat)가 입안한 구동독 지역 대학 구조개혁안은 다음의 7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Wissenschaftsrat, 1992: 10-11).

① 대학 외 연구인력을 대학에 통합함으로써 기초연구역량을 강화한다. 구동독의 대학 외 연구소 인력(27%)은 서독(13%)의 두 배나 된다. 대학 외 연구소가 주로 응용 분야 연구를 담당하므로 통일 후 경쟁력을 상실한 응용연구 분야의 연구인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상실한 대형복합공장(콤비나트)이 대부분 와해되면서 산업체 연구인력(61%) 역시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② 대학 외 연구소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한다. 구동독의 대학 외 연구소 연구인력은 모두 과학원 산하 연구소에 배속되어 있었다.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의 과학원 역시 해체되고 그 대신 구서독의 국공립 연구기관인 막스-플랑크 연구재단, 헬름홀츠 연구센터, 프라우엔호프 연구재단 등의 산하 연구소들이 구동독의 과학원 산하 연구소의 기초연구 인력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대학의 연구인력 수용 능력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 소속 연구인력과 이들 국

www.kci.go.kr

공립 연구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③ 구동독의 특수전문대학(Spezialhochschule)을 종합대학에 통합한다. 구동독에서 '당정치학교'처럼 체제 유지에 봉사하거나 특수한 국책사업 수행을 담당하던 특수전문대학들은 통일과 더불어 존립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대부분 해체되었고, 이공학 분야의 특수전문대학은 종합대학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졌다.

④ 경쟁력 있는 전문대학(Fachhochschule)을 육성한다. 서독 사회에서 전문대학 출신은 기술전문직의 70%, CEO의 30%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데, 구동독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전문대학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였다.

⑤ 지나치게 세분화된 교과과정을 통합한다. 과거 동독 시절 국책사업에 맞추어 기능적으로 세분화된 대학의 교과과정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통합하여 대학 본연의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이것은 모든 학문 분야에 해당된다.

⑥ 대학을 신설하기 전에 혁신부터 해야 한다. 대학을 신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교수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기존 대학의 혁신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⑦ 원래는 1994년까지 구동독 지역의 대학 개혁을 완료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로는 1995년까지 구조개혁이 계속되었고 세부적인 보완조치 등은 199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2. 대학의 통폐합과 신설

앞에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구동독 지역의 대학들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편되었다. 대학 개혁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체적으로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으로 이원화되었다. 구동독 당시 9개이던 종합대학이 1996년 기준으로 16개로 늘어났고, 예술전문대학은 거의 같은 수를 유지했으며, 전문대학이 34개나 신설되었다.

www.kci.go.kr

표 5 구동독 지역의 대학구조 재편

		1989	1996	2007	독일 전체	비고
존속	종합(공과)대학	9	16	15	84	3개 신설, 4개 격상
	예술전문대학	12	11	9	51	
	신학대학	2	11(2)	10(2)	45(14)	괄호 안은 종합신학대학
통합	공업 · 기술전문대학	14	-	-	-	종합대학 · 전문대학에
	사범대학	9	1	-	6	통합
	의과대학	3	-	-	-	
	체육전문대학	1	-	-	-	
	상업전문대학	2	-	-	-	
	농림전문대학	2	-	-	-	
	광산전문대학	1	-	-	-	
폐지	당정치대학	4	-	-	-	구동독 체제 재생산
	국방대학	10	-	-	-	
	경찰대학	3	-	-	-	
신설	전문대학	-	22	21	190	
	행정전문대학	-	9	8	30	정부기구 부설
	사립대학*	-	3	8	83	주로 전문대학

주: *사립대학: 종합대학 9, 전문대학 73, 예술전문대학 1
출처: Buck-Bechler(1997: 100); Lewin/Pasternack(2007: 38).

- 군소 기술전문대학을 종합대학, 종합공과대학(TU), 신설 전문대학에 통합했다. 14개의 공업기술전문대학, 9개의 사범대학, 3개의 의과대학, 그리고 체육전문대학과 상업전문대학 등의 특수전문대학들이 종합대학과 신설 전문대학 등에 통합되었다.
- 특히 14개의 공업기술전문대학을 통합한 것은 구동독의 노후한 산업구조 재편과 연동되어 있다.
- 과거 동독 시절 체제 유지 기능을 맡던 당정치대학, 국방대학, 경찰대학 등의 국책전문대학을 폐지하고, 직능 중심의 행정전문대학을 신설했다.
- 구동독 당시와 비교하면 신학대학이 2개에서 11개로 급증했고, 사립대학이 신설되어 2007년 현재 8개에 이르고 있다.
- 구동독 당시에는 종합대학의 수가 적었으나 통일 독일 정부는 구동독 지역에 종합대학 대 전문대학 수의 비율을 6:4 내지 5:5로 조정하고, 학생 수 기준으로는 2:1로 종합대학 학생 수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추진했다.

www.kci.go.kr

- 또한 구동독 당시의 대학생 수는 전체 학령인구의 16%로 구서독 지역 35%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통일 후에는 2000년까지 세 배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구동독 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출산율이 지속됨에 따라 2000년 기준으로는 이러한 목표가 충족되지 못했으나, 2010년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서독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학생 수가 늘었다.
- 국가학술정책자문위원회는 구동독 지역의 대학 개혁을 구서독 지역의 대학구조를 이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고등교육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나(Wissenschaftsrat, 1990.7.6) 전반적으로 보면 '전환(Transformation)'이 아니라 '전이(Transfer)'만 이루어졌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한승완, 2010: 44).

3. 대학교원의 인적 쇄신

통일조약 제2조에 명시된 공직 인력 감축 원칙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개별적인 퇴출이 가능하며, 그 심사기준으로 '전문성', '수요 과부족', '소속 기관 존폐 여부'가 설정되었다. 이 원칙을 반영하여 입법된(1990년 12월) 대학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 개정안은 대학교원 개개인의 직위를 승계하려면 주정부의 법적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75조). 실제로는 대학별 인사위원회가 모든 교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했고, 그 권고안에 대해 주정부 문화부 장관이 추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애초에 1992년까지 대학교원의 인적 쇄신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1993년까지 기한이 연장되었고, 부분적으로는 1994년 이후에도 인적 쇄신이 계속되었다. 1994년까지 구동독의 대학교원 3만 8,900여 명 중 7,900여 명(약 20%)이 퇴출되었다.[2]

1) 주요 특징

- 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한 분야의 교원이 대거 퇴출되었다. 특히 정치경제학

[2] 퇴출인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로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그 기간 안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임된다. 이것은 모든 공직자에 해당된다.

www.kci.go.kr

표 6 전공 분야별 대학교원 퇴출 현황

	재직 대학교원(1989년)			퇴출인력(1994년)	
	총원(명)	비율(%)	여성비율(%)	숫자	비율
인문학	6,922	17.8	50	1,790	26
체육	1,181	3.0	28	404	34
사회과학, 법학	5,483	14.1	32	4,879	89
자연과학	5,831	15.0	18	-	-
의학	7,964	20.4	37	188	2
농학	1,248	2.2	24	108	9
공학	6,395	16.4	10	159	2
예술	1,021	2.6	48	30	3
정부부설대학	2,864	7.4	34	423	15
합계	38,909	100	31	7,981	21

출처: Buck-Bechler(1997: 331).

5,300명, 법학 500명 등 과거 동독 체제의 이념적 재생산에 핵심역할을 했던 학문 분야에서는 90% 가까이 퇴출되었다.

- 인문학 분야에서도 주로 구동독 체제의 정통성을 교육하는 데 치우쳤던 교육학, 역사학, 철학, 독문학 등에서 많은 교원이 퇴출되었고, 러시아어 교원은 러시아어가 필수과목에서 해지됨에 따라 많은 수가 퇴출되었다.
- 체육 과목이 필수과목에서 해지됨에 따라 담당 교원의 34%가 퇴출되었다.
- 이공학 분야의 교원은 약 97%가 승계되었다.
- 표 6에서 정부부설대학의 교원은 1994년 현재 15%가 퇴출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로는 1990년대 말까지 70%가 퇴출된 것으로 추산된다(Pasternack, 2005: 225).
-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적 쇄신은 2000년대까지도 계속되어 실제로는 구동독 시절에 재직하던 교원의 60%, 대학 외 연구소 인력의 60%, 산업체 연구인력의 85%가 퇴출된 것으로 추산된다(Pasternack, 2005: 227).

2) 대학 유형별, 인력 구성별 특징

- 종합대학 교원의 퇴출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구동독 당시 종합대학 교원은 교수 3,468명, 강사 4,047명으로 총 6,053명이었는데 그중 41%에 해당

www.kci.go.kr

표 7 대학 유형별 교원 수 비율의 변화(1989~1994년) (단위: %)

연도	종합대학	전문대학	예술대학
1989	75	18	7
1994	55	38	7

출처: G. Buck-Bechler(1997: 350).

되는 3,592명이 퇴출되었다.

- 종합대학 교원 수를 대폭 줄이고 전문대학 교원 수를 대폭 늘렸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동독 당시에는 종합대학 교원이 전체의 75%를 차지했으나 통일 후에는 종합대학 교원이 55%로 줄어들고 그 대신 전문대학 교원이 18%에서 38%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 교수나 강사보다는 조교나 연구원 등 '보조인력(Wissenschaftliche Mitarbeiter)'이 압도적으로 많이 퇴출되었다. 구동독 대학의 교원 중 3만 1,393명이던 보조인력은 1994년 기준으로 1만 7,024명으로 줄어들어 전체의 46%가 감축되었다.
- 대학 직원 역시 구동독 당시 6만 2,000여 명에서 4만 3,000여 명으로 대폭 감축되었다.

3) 대학교원 충원

- 구동독 지역 주정부들은 1994년까지 종합대학 퇴출인력 3,592명을 충원하고 신설 전문대학 교원 2,566명을 신규 임용하여 1994년 말까지 구동독 당시의 대학 교원 수를 회복했다.
- 이를 위해 1994년까지 이른바 학과창립교수(Gründungsprofessoren)를 종합대학 216명, 전문대학 169명 등 모두 385명을 임용하여 구조개혁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다.
-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 구조개혁 완료 목표 시점인 1994년까지 적정교원 수의 68%를 충원했고, 1996년까지 85%를 충원했다.
-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기준으로 구동독 지역의 대학교원 수는 독일 전체 교원의 15.7%로 구동독 지역의 인구비율과 정확히 일치하여 구서독 지역과 대등한 수준을 확보했다.

www.kci.go.kr

표 8 연차별 대학교원 충원율 (단위: %)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40	68	75	85

출처: Buck-Bechler(1997: 342).

표 9 대학 교원 현황(2004년 기준)

		구동독 지역		구서독 지역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종합대학					
전체		22,281	-	122,053	-
여성		3,726	16.7	20,119	16.5
전문대학					
전체		3,218	-	15,346	-
여성		2,280	70.9	11,785	76.8
행정전문대학					
전체		246	-	1,645	-
여성		27	11.0	506	30.8
합계	전체	25,745	-	139,044	-
	여성	6,033	23.4	32,410	23.3
동서 비교	전체	25,745	15.7	139,044	84.3
	여성	6,033	15.6	32,410	84.4

출처: Pasternak(2007: 48).

-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기준으로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구동독 출신 교원이 각각 52%, 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구서독 출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여 '서독에 의한 식민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김동훈, 2007: 207).
- 구동독 지역 대학의 학문 분야별 대학교원 현황은 표 11과 같다.

www.kci.go.kr

표 10 구동독 지역 대학교원의 출신 지역 분포(1995년) (단위: %)

	종합대학	전문대학	예술대학
구동독 출신	52	58	71
구서독 출신	45	41	22
외국인	3	1	7

출처: Buck-Bechler(1997: 343).

표 11 구동독 지역 학문 분야별 대학교원 현황

분야	교원 수	비율(%)
인문학, 체육	3386	14
사회과학, 법학	1848	8
자연과학	4949	21
수의학	119	1
농학	696	3
공학	5353	23
예술	1006	4
의학	5688	24
중앙기관	565	2
합계	23610	100

출처: Buck-Bechler(1997: 348).

4. 대학생 수의 증감

산업기반이 취약한 구동독 지역에서 대학생 수는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통일 독일 정부는 2000년까지 구동독 지역의 대학생 수를 통일 이전의 세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1989년 통일 직전 시점에 구동독에서 18~19세 학령인구 22만 4,000여 명 가운데 15.5%에 해당하는 3만 4,800여 명이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구동독 지역의 대학 진학률은 구서독 지역의 35%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통일 후 4년 만인 1994년에는 학령인구의 35%에 해당되는 6만 4,700명이 대입 자격을 취득하여 구서독 지역(34.4%)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생 수가 정체되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2004년 기준으로 구동독 지역의 대학생 수는 15만 5,400명

www.kci.go.kr

표 12 구서독 지역 대비 구동독 지역의 실업률

1991년	1997년	2005년	2008년	2013년
1.65배	1.77배	1.87배	2.04배	1.6배

출처: 통계연감(2009; 2014).

으로 인구 1,000명당 11.6명으로 구서독 지역의 14명보다 적다. 이처럼 구동독 지역의 대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경제상황이 열악해지자 출산율이 저하되어[3] 학령인구의 절대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구동독 지역의 높은 실업률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와 악순환 구조로 맞물려 있다. 게다가 구동독 지역 학생들이 구서독 지역의 대학과 수도 베를린에서 학업을 계속하기를 선호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대학 입학생의 20~30%가 구서독 지역 및 베를린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도 구동독 지역에서 대학생 수가 감소하는 요인 중 하나다.

주별 대학 입학생 수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청소년의 60%가 대학에 진학하는 데 비해 독일은 46.3%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특히 포르투갈(98%), 호주(96%), 뉴질랜드와 노르웨이(76%)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지역별로는 하나의 도시가 주를 이루는 브레멘(75.8%), 함부르크(73.8%), 베를린(66.9%)이 월등히 높고, 그 반면 브란덴부르크(34.4%),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37.3%), 작센-안할트(39.2%) 등의 구동독 지역에서는 대학입학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구동독 지역은 2000년 평균 23.4%에서 2011년 40.4%로 증가하여 통일 직후 설정한 목표치(45%)에 못 미치지만, 증가율은 거의 두 배에 육박해서 구서독 지역의 1.5배를 앞지르고 있다.

3 1990년 1.47명에서 1993년 0.77명으로 줄어듦.

www.kci.go.kr

표 13 대학입학생 수 증감(2000~2011년) (단위: %)

주	2000년			2006년			2011년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바덴-뷔르템베르크	32.3	34.1	30.5	37.6	39.6	35.7	51.4	52.9	49.9
바이에른	29.0	29.5	28.5	34.9	35.1	34.9	47.6	47.6	47.7
베를린	47.5	45.8	49.4	43.7	44.2	43.4	66.9	64.6	69.2
브란덴부르크	**19.3**	**17.8**	**21.0**	**22.3**	**20.9**	**23.9**	**34.4**	30.1	**39.1**
브레멘	48.4	49.3	47.7	63.0	65.3	61.0	75.8	76.5	75.3
함부르크	48.4	54.7	42.3	52.8	58.6	47.5	73.0	75.3	71.1
헤센	31.7	31.4	32.0	43.5	43.0	44.2	51.7	53.3	50.1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22.4**	**19.6**	**25.4**	**25.0**	**22.5**	**27.7**	**37.3**	**34.7**	**40.0**
니더작센	26.0	25.2	26.9	27.2	26.8	27.7	33.7	33.5	34.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31.9	31.7	32.1	37.8	38.9	36.7	45.0	45.3	44.8
라인란트-팔츠	29.5	27.7	31.5	36.3	34.8	37.9	45.8	43.3	48.5
자를란트	27.2	26.9	27.6	31.1	29.7	32.7	48.4	47.0	49.8
작센	**29.3**	**28.7**	**29.8**	**34.8**	**36.2**	**33.1**	**45.7**	**46.8**	**44.6**
작센-안할트	**23.2**	**20.4**	**26.2**	**26.1**	**24.5**	**27.8**	**39.2**	**35.2**	**43.5**
슐레스비히-홀슈타인	20.7	20.8	20.6	26.1	26.3	26.0	29.3	30.1	28.9
튀링엔	**22.9**	**21.7**	**24.1**	**29.0**	**26.8**	**31.4**	**45.2**	**41.7**	**48.7**
구동독 지역 평균	**23.4**	**21.6**	**25.3**	**27.4**	**26.2**	**28.8**	**40.4**	**37.7**	**43.2**
독일 평균	30.2	30.0	30.5	35.4	35.6	35.1	46.3	45.9	46.7
OECD 평균	44.2	39.8	47.2	55.9	49.6	62.4	60.0	53.2	67.1

출처: Internationale Bildungsindikatoren im Ländervergleich(2013: 85, 87).

IV.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비한 시사점

1990년대 초반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이후 북한의 대학체계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되었지만 소련형 대학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정근식, 2016: 141). 대학과 과학원, 사회과학원이 병존하고, 간부를 양성하는 특수대학과 노동자들을 위한 기능대학이 존속하며, 대학 안에 당 조직이 있고 당이 대학운영을 관장하는 지배구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교육이 주체사상 교육으로 대체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대학운영 구조는 구동독의 대학체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독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대학 개혁에서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비하여 특히 다음 사항들을 눈여겨볼

www.kci.go.kr

필요가 있다.

첫째, 구동독 지역의 대학 개혁 과정에서 대학교원과 연구인력이 대거 퇴출되면서 고급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그러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의 대학에서 학문 분야별로 어떤 수준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체제이념과 무관한 순수과학 분야인 수학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김도한 · 신정선, 2016), 2015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남한이 3위, 북한이 4위를 했다는 사실도 그런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그렇지만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요구하고 경제발전 수준과 맞물려 있는 공학 분야에서는 남북한 간 교육 및 연구 수준의 격차가 클 것이라 짐작된다. 이러한 분야에 관해서는 가능한 분야별로 남북한 학술교류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해 학문의 균등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술 교류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단계에 가서는 가능한 분야별로 북한의 대학교원 및 학문후속세대에게 남한의 교육내용 및 연구성과를 이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의 대학 개혁은 단계적 · 체계적 접근을 요구한다. 독일의 경우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대학구조 개혁(1단계) →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2단계) →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3단계)으로 나아가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독일은 국가학술정책자문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서 국가적 차원의 학술연구 정책을 총괄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중장기 정책을 안정적 ·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우리도 이처럼 일관되게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일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 25년 동안 독일 정부는 구동독 지역의 대학교육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구동독 지역의 대학들은 구서독 지역 대학에 비해 여전히 낙후되

www.kci.go.kr

어 있으며, 이것은 동서간 소득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사태와 연관되어 있다. 통일이 단지 체제통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균등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몇 세대에 걸친 장기지속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투고일: 2017년 5월 10일 | 심사일: 2017년 6월 12일 |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3일

참고문헌

김도한 · 신정선. 2016.『북한의 수학 연구현황 분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동훈. 2007. "철저한 식민화인가, 새로운 정체성 확립인가?: 통일 이후 동독 학문영역의 지형변화."『독일문학』103, 196-220.

임홍배 · 송태수 · 정병기. 2011.『기초자료로 본 독일통일 20년』. 서울대학교출판부.

정근식. 2016. "북한에서의 소련형 대학의 이식과 희석화." 아시아연구소 · 통일평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소련형 대학의 형성과 해체』(2016년 10월 28일), 119-141.

한승완. 2010. "독일통일에서 학문통합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2010년 10월), 31-52.

Buck-Bechler, Gertraude u. a. 1997. *Hochschulen in den neu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einheim.

Geißler, Rainer. 1994. *Soziale Schichtung und Lebenschancen in Deutschland*. 2. Aufl. Stuttgart.

Lewin, Dirk/Peer Pasternack. 2007. *Die Struktur der ostdeutschen Hochschullandschaft*.

Nikitin, Andreij P. 2000a. *Die Sowjetische Militäradministration und die Sowjetisierung des Volksbildungssystems in Ostdeutschland 1945-1949*, in: Manfred Heinemann (Hg.): *Hochschuloffiziere und Wiederaufbau des Hochschulwesens in Deutschland*. Berlin.

Nikitin, Andreij P. 2000b. *Die Politik der Sowjetischen Militäradministration in Deutschland zur Bildung des Lehrkörpers der Hochschulen*, in: Manfred Heinemann (Hg.): *Hochschuloffiziere und Wiederaufbau des Hochschulwesens in Deutschland*. Berlin.

www.kci.go.kr

Pasternak, Peer. 2005. “Wissenschaftsumbau,” in: Hannes Bahrmann/Christoph Links (Hg.), *Am Ziel vorbei. Die deutsche Einheit - Eine Zwischenbilanz*, Berlin.

Pasternak, Peer(Hg.). 2007. *die hochschule. Sonderband*, Wittenberg.

Statistisches Bundesamt. 2009. *Statistisches Jahrbuch 2009 fü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esbaden. [인용표기: 2009년 통계연감]

Statistisches Bundesamt. 2014. *Statistisches Jahrbuch 2014 fü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esbaden. [인용표기: 2014년 통계연감]

Statistisches Bundesamt. 2013. *Internationale Bildungsindikatoren im Ländervergleich*. Wiesbaden.

Tenorth, Heinz-Elmar (Hg.). 2012. *Geschichte der Universität unter den Linden. Bd. 3. Sozialistisches Experiment und Erneuerung in der Demokratie – die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1945-2010*. Berlin.

Wissenschaftsrat. 1992. *Empfehlungen zur künftigen Struktur der Hochschullandschaft in den neuen Ländern und im Ostteil Berlin*. Bonn.

Wissenschaftsrat. 1990. *Empfehlungen für die Planung des Personalbedarfs der Universitäten*. 1990. 7. 6.

www.kci.go.kr

Abstract

Implantation and Dismantling of Soviet Model University in East Germany

Hong Bae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niversities in East Germany were reconstruct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oviet Military Administration and the Socialist Unity Party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The typical feature of the Soviet model in East Germany universities was that Academy of Social Science and Academy of Science were established under the SED Central Committee independently of the university, and it is most prominently shown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of Politics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the party members. Apart from the Ministry of Public Education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 which was in charg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Ministerium für Hochschulwesen) with exclusive power over university education was established to place emphasis on university education. Moreover, in order to give an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to all people, the Workers' Faculty was established to give chance to the children of workers and farmers. The three-year education course of combining university education and employment activity was organized in the 1960s and it led to 25% of all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course by the early 1970s. The features of it curriculum included required subjects of ideology education of Marxism-Leninism, Russian language, Physical Education etc. The student council, an independent organization of university students, was prohibited by law and instead, it was substituted by official

www.kci.go.kr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versity branch of the Free German Youth (Freie Deutsche Jugend) linked to the SED.

The reform of universities in East Germany that started with the German unification in 1989 was implemented by abolishing the special colleges such as School of Politics and Military Academy and Technical college that lost competitiveness and by establishing a competitiv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Fachhochschule). More than 90% of the professors in the fiel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ith strong ideological tendencies were weeded out and in overall, 60% of all professors, 60% of researchers outside the universities, and 85% of researchers in industry were forced out. At the time of the German unification, the number of new undergraduates occupied 16% of people of school age in East Germany and 35% in West Germany, but in 2010, the number in East German recovered up to 40~45%, the average of Germany.

The implication of the reform of universities in East Germany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for preparing the Korean unification is that above all, a gradual balanced development must be promoted through mutual exchange and approach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For example, although a great number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in East Germany were forced out, we need to find the measures to share intellectual assets of South Korea with the professors and researchers in North Korean universities before the unification. Noting that the number of university students in East Germany drastically reduced after the unification, the measures to maintain a certain number of North Korean students and to help them continue their studie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successfully accomplish these tasks, a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various academic fields.

Keywords | Soviet model university, socialist system, unification, reform of university, balanced development

www.kci.go.kr